

갈바리의원

▶ 할머니, 아~해 보세요.



강릉원주대학교 치의예과 4학년 학생들이 2학기부터 호스피스병동에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 교수이신 김영

준 교수님이 병실을 방문하여 할머니들의 구강 및 치아 건강을 진단해 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 꽃꽂이를 하고 있어요.



환우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원예치료 시간... 꽃을 만지는 시간 동안은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꽃 때문에 각 병실마다 웃음꽃과 국화향이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 견학 & 꽃꽂이



예담교회에서 견학을 나왔었고(左) 환우분들이 꽃꽂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 꼭 방문하고 싶었던 갈바리...



11월 2일~3일, 부산지역암센터에서 호스피스 고위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수녀님 세 분과 사회복지사 한 명이 갈바리호스피스에 실습을 나왔습니다. 마침 환영이라도 하는 듯 내리는 눈... 눈사람을 환우분께 선물 하면서 기념사진 한 컷을 남겼습니다.

▶ 사랑의 봉사에 All in ...



영동대 간호학과 '올인' 봉사 팀이 맛있는 간식과 재미있는 오락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환우분들과 가족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늘 사랑을 다하여 봉사에 'All in'해 주시는 '올인' 팀께 감사!

▶ 내가 만든 비누... 누구에게 선물할까?



강원도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강릉분소장 김경란 수녀가 아로마 비누 만들기를 지도해 주고 계십니다. 수녀님께 감사드립니다.

대전성모병원

▶ 호스피스 증례발표



한국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대전·충남지회)에서 주최하고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호스피스 팀에서 주관하는 호스피스 증례 발표가 11월 16일(월)에 본 병원 9층 상지홀에서 개최되었다. 이 날 대전, 충남 지역과 타 지역에서도 참석하였으며, 많은 관심아래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미술치료사, 원목자, 자원봉사자들이 하나가 되어 증례발표의 성황을 이뤘다.

▶ 사별가족모임



지난 11월 18일 수요일에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호스피스팀에서 사별가족모임을 가졌다. 생을 떠난 고인



들을 위한 미사를, 그리고 미사 때에는 챔버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사별가족을 위하여 특별한 작은 음악회를 선사하여 감회가 깊었다. 미사 후에는 미술치료사(박정연)와 함께 그 가족들은 그림을 그리고 점

토로 작품을 만들면서 고인을 추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고인을 위하여 편지를 쓰고 소망하는 마음의 선물을 풍선에 매달아 고인에게 닿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 높이 풍선을 띄웠다. 사별가족모임에서만은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그리움 등 감정들을 숨김없이 표현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아픔보다는 따뜻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

▶ 호스피스바자회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은 12월 7일 - 8일 1층 로비에서 호스피스 환우와 가족을 위한 바자회를 하였다. 친환경운동의 하나인 EM비누, 아로마 비누, 보석, 그리고 기능성 속옷류와 각종 성물 등이 판매되었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모두가 함께하여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 호스피스 부제반 교육



11월 30일 - 12월 2일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상지관 9층 상지홀에서 호스피스 부제반(대전,청주교구) 교육을 실시했다. 박재만 병원장 신부님의 격려사로 시작된 이번 교육은 강의, 비디오시청, 본원 tour 및 전인 치료센터 현장에서의 돌봄 견학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뻘뻘한 교육 일정 내내 부제님들의 진지한 태도와 높은 관심은 보는 이들의 마음 속에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왔으며 아울러 죽음을 앞둔 호스피스 대상자들에 대한 총체적인 돌봄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되었으리라 기대한다.

▶ 대전성모병원 호스피스팀 김혜자 수녀 국무총리상 수상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호스피스팀장 김혜자 수녀는 지난 10~11일 충남 예산 덕산스파캐슬에서 열린 '2009년 국가암 관리사업 평가대회'에서 국가암관리사업을 통해 말기 암환자 완화의료 지원사업의 적극 추진과 재가암환자 관리로 지역사회 말기 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평가대회는 올해 국가암관리사업을 평가하고 일선 현장의 우수 사례를 발굴·공유함으로써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의 암관련 종사자 490여명이 참석했다.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호스피스팀은 2005년 이후부터 매년 국가에서 선정하는 암환자 완화의료지원사업에 선정되었고, 올해 1월에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말기암환자 완화의료지정기관으로 승인되었다. 또 2010년도 시범사업인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개발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부천성모병원

▶ 제13회 호스피스 추모행사



- 행사명 : 호스피스 추모행사
- 날짜 : 2009년 11월 4일
- 시간 : 17:30 ~ 19:30
- 대상 : 호스피스병동 사별가족
- 주최 : 호스피스팀
- 참석인원 : 사별가족 - 30가족  
성빈센트병원 - 아나스타시아 수녀님,  
배은경 간호사  
미술치료사 - 김성자 선생님  
원내 - 39명
- 내용 :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에서 지난 2009년 11월 4일(수) 오후 5시30분부터 호스피스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추모행사가 있었습니다.  
1부는 추모행사로, 시작기도로 시작하여 고인의 이름 호명 - 분향 및 초 봉헌 - 호스피스의 지난 일년 영상 - 간호사의 편지 - 가족의 편지 - 호스피스팀의 작은 음악회의 순서로 이루어졌습니다.  
2부는 식사시간으로 사별가족 분들이 보내주신 음

식과 자원봉사자들이 준비해 온 음식으로 준비 되었습니다.

많은 사별가족분들이 떠나가신 분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보이시기도 했지만, 고인을 위해 기도하며 참석하신 분들 서로에게서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성바오로복지병원

▶ 커다란 선물, 고맙습니다!!



복지병원은 9월 3일에 커다란 선물을 받았습니니다.

전주 중앙로타리클럽에서 환우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위커, 보행기, 안전의자를 후원해 주신 것입니다. 병실에 들어선 안전의자로 인해 환우들은 더욱 편안한 휴식을 얻게 되었고, 그런 환우들의 모습을 통해 중앙로타리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집니다.

▶ 사별가족모임이 있었습니다!



위령성월을 맞아 우리 병원에서 선종하신 분들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고인들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1월 8일 오후 2시 미사로 시작하여 웃음 치료와 가족들의 만남과 사별 후 생활 나눔이 있었습니다.

먼저 가신 분들이 남기고 간 유지를 잘 받들어 열심히 사시는 것을 보면서 가족들과 귀중한 시간이 되도록 참석해주신 모든 사별가족께 감사드립니다.

▶ 최첨단 내시경 장비를 기증받았습니다!!



LA한인 국제 로타리클럽, 서전주 국제 로타리클럽, 그리고 기타 로타리클럽 회원분들이 투병중인 환우들을 위해 고가의료장비인 내시경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최첨단 내시경기기 설치로 복지병원은 환우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거듭났습니다. 국제로타리클럽 모든 회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성빈센트병원

▶ 제 8회 호스피스 추모제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 병원 호스피스 팀은 11월 13일(금) 성 빈센트 드 빨 자비의 수녀회 강당에서 '제 8회 호스피스 추모제'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50여 명의 사별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시 낭독, 가야금 연주, 추모 샄풀이, 분향 및 추모 전례, 마음풀기, 돛자리춤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행사가 끝난 후 고인을 향한 마음을 풍선에 담아 하늘에 날리는 시간을 가져 못다한 마음을 전하고 서로 슬픔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심병용 중앙내과 교수는 “사별가족들의 슬픔을 해소해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조금 덜어드리고자 마련한 자리이다.”며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마음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서로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참석한 한 사별가족은 “살을 마감하는 과정에서 아름답게 이별을 맞도록 도와주신 호스피스병동 모든 의료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 사별가족, 환자들을 위한 미사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호스피스팀은 10월 26일(월) 호스피스병동에서 사별가족과 환자들을 위한 첫 미사를 실시했다.

이번 미사는 병동 의료진들과 입원 환자들이 사별가족들을 초대하여 서로 위로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미사는 류충렬 신부(원목실장)의 집전으로 고인의 뜻을 기리고 그 가족들에게 용기를 주는 시간이 되었으며 미사가 끝난 후에는 사별가족모임을 가졌다.

사별가족을 위한 미사는 매달 마지막주 월요일 오후 2시 호스피스병동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일반인 교육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호스피스팀은 10월 29일(목)부터 3일간 별관5층 세미나실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일반인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호스피스팀에서 존귀한 생명과 삶의 의



미를 되새기며, 말기 암 환자와 그 가족들을 바람직하게 돌보기 위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열렸다.

첫째날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개요, 호스피스 대상자의 영적관리를 위한 치료적 의사소통 등의 교육이 있었으며 둘째날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실제, 사별가족 관리 등의 교육이, 셋째날에는 품위 있는 임종 준비, 자원봉사자의 역할 등의 교육이 이어졌다.

성가롤로병원

▶ 호스피스·완화의료팀의 신규봉사자 교육

호스피스·완화의료팀에서 봉사를 하고자하는 분들을 위해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 10층 교육실에서 신규봉사자 7명이 10월 한 달 동안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교육이 실시되었다.

신규 봉사자들이 앞으로의 활약을 통해 예수성심의 사랑을 전하는 호스피스봉사자로서의 희망과 함께 많은 기대를 가져본다

▶ 가톨릭 호스피스협회 봉사자상 수상

호스피스·완화의료팀에서 9년간 숨은 봉사자의 모습으로 열심히 봉사 해 오신 김순희(데레사)자매님이 10월 10일 가톨릭 호스피스협회 봉사자의 날에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봉사자상을 수상하여 봉사자 팀장과 수녀님이 참석하여 함께 축하 해주고 기쁨을 나누었다.

▶ 따뜻한 후원금 소식 !!

고인이 되신 박 연이님 보호자께서 고인이 남기신 금액 1,460,000원 전액을 후원금으로 주셨다. “저희 보다

더 어려운 환우들을 위해 사용해주세요. 어머니도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라고 하셨다. 저희 완화의료팀에서는 어머니 박연이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하고 미사를 봉헌 해 드렸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호스피스 · 완화의료팀 봉사자 성지순례 겸 아우회

10월 30일 병원 봉사자와 함께 여산 천호성지에서 성인들의 얼을 기리며 미사봉헌 후 순례를 마치고 백양사에 들러 곱게 물든 자연 안에서 하느님을 마음껏 찬미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굳게 다지는 시간들을 가졌다.

▶ 소식지발간

성가롤로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팀에서는 소식지 창간호를 발행하여 후원자, 각 기관, 사별가족들에게 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 사별가족모임 및 미술작품 전시회



모미사와 웃음요법, 환우들이 미술요법시간에 만든 작품들을 전시하여 사별가족들에게는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병원과 지역민들에게 호스피스를 알리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제주 성이시들 복지의원

지난 11월 위령성월의 둘째 주 목요일인 2009년 11월 12일에 병동 사별가족미사 및 추모식이 있었습니다. 사별한 영혼을 위한 미사와 유가족들의 촛불 봉헌식이 있었습니다. 가족의 슬픔과 고통을 나눌 수 있었으며, 미사 후에는 유가족 지지모임을 가졌습니다.



호스피스 · 완화의료팀에서는 위령성월을 맞아 11월 20일 전체 사별가족을 초대하였다. 고인들을 위한 추

## 서울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팀은 지난 10~11일 충남 예산 덕산스파캐슬에서 열린 '2009년 국가암 관리사업 평가대회'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을 통해 공이 큰 단체로 선정되어 국무총리단체상을 수상하였다.



## ▶ 2009 암환자 완화의료기관 지원사업 선정 기관 사례발표회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하는 2009 암환자 완화의료기관 지원사업 선정기관 사례발표회가 지난 11월 17일 화요일에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9층 상지홀에서 개최되었다. 세 개의 방으로 나뉘어 분야별 발표가 있었으며 참석자는 70여 명이였다.

## 호스피스 협회

### ▶ 기관대표자 모임



2009년 12월 5일 (토) 오전 9시 성 베네딕도 피정의 집에서 호스피스 기관 대표자 모임이 미사를 시작으로 개최되었다. 대의원 제도 확인 및 호스피스의 방향 설정에 대해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산하기관 40여 기관 중 대표 25인이 참석하였다. 초청 연사로는 작은형제회의 박재한 신부님께서 영적돌봄의 실재라는 주제로 심도 높은 강의를 펼쳐 주셨다.

### ▶ 2009년 신규 회원 명단

- 전진상의원  
김채옥
-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박태정, 박경아